



역사와 자연이 흐르는 임진강에서 평화를 기원한다

오늘의 여정은 조선시대의 명재상 황희 정승이 만년에 갈매기를 벗 삼아 지냈다는 반구정에서 마정리, 장산전망대를 거쳐 임진강변을 따라 울곡 이이 선생이 학문을 연마한 화석정이 있는 울곡2리에 이르는 10.8km(반구정-마정초교-장산전망대-울곡2리, 3시간 20분 소요)의 소담한 코스를 걷는 길이다. 먼저 오늘의 시작점인 반구정으로 접어드는데 도로변에 장승이 여럿 서 있어 호기심에 살펴보니 원당문화전시관이라는 향토 조각공원의 나무 조각들이다. 장승들의 표정이 다 제각각으로 절묘하게 조각을 해두었으니 살펴보기 바란다.

황희 정승이 여생을 보낸 반구정

시작점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먼저 반구정을 구경하지 않을 수 없다. 반구정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이며 청백리의 귀감인 방촌 황희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곳으로, 예부터 갈매기가 많이 모여들어 '갈매기를 벗 삼는 정자(伴鷗亭)' 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반구정은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기암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래로는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고 위로는 송림이 울창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



반구정(왼쪽)과 정승.

먼저 황희 정승의 연혁을 써놓은 안내문을 읽어 내려가며 공부를 해본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황희 정승이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대왕이 세자에 책봉되는 것에 반대하다 왕의 미움을 사 서민으로 신분이 강등되고 유배되었다가, 유배시켰던 태종의 천거로 60세에 다시 복직되어 세종을 보필하며 수많은 업적을 쌓아 87세까지 명재상으로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90세까지 천수를 누리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니 청정문(淸政門)이 서 있다. 한자가 뜻하는 대로 황희 정승 같은 청백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 반구정에 오르니 도도히 흐르는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경치가 일품이다. 다만 강 따라 같이 흐르는 철책선을 황희 정승이 봤다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 위에도 정자가 하나 있는데 양지대(仰止臺)라고 한다. 본래의 반구정이 있던 자리란다. 나오면서 기념관에 들르니 황희 정승의 업적을 기린 글들과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옛날 양반들이 쓰던 벼루며 산호로 된 갓끈 등을 놓치지 말고 보실 것을 권한다.

나와서 이정표를 따라가니 자유로를 왼편으로 끼고 가는 길이다. 자유로 너머에는 철책선이 나란히 서 있고 길에는 코스모스들이 피어 있다. 경치가 정말 좋다. 그래, 이 맛에 걷는 거야!

들판의 벼는 한껏 고개를 숙이고, 그 위로는 철새들이 줄지어 날아간다.

길가의 들국화도 보고 부들도 보는 사이에 이정표를 만난다. 울곡2리가 8.9km 남았단다. 이정표를 따라 큰 농수로 곁을 걸으면서 들판의 잘 익은 벼를 바라보며 농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농수로 끝 부분에 이르니 철길 건널목이 나온다.

건널목에서 왼쪽을 보니 임진강역이다. 임진강역 너머로는 도라산역으로 가는 열차가 운행된다. 횡단보도를 건너 2차선 도로로 접어든다. 이정표와 리본이 길 안내를 잘하고 있다.

길 따라 논 사이를 걸어가니 마정리 이정표가 나오고 마을이 나타난다.

옛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집들을 지나니 마정3리 버스정류장이 나

타난다. 좌회전하라고 누리길 이정표가 가리킨다. 모퉁이에 하늘사랑 교회에서 있다. 큰 교회만 눈에 익어 있다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작고 아담한 교회를 보니 웬지 기분이 좋아진다. 교회를 끼고 좌회전하니 은행나무 가로수가 줄 서 있고, 바닥에는 은행알이 지천으로 떨어져 있다. 마정초등학교를 지나 한적한 길을 간다. 마정4리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오니 누리길 이정표가 같이 서 있다.

마을의 농가와 텃밭의 작물들을 구경하는 사이 마을을 어느덧 벗어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산2리가 나온다.

생태계의 보고, 초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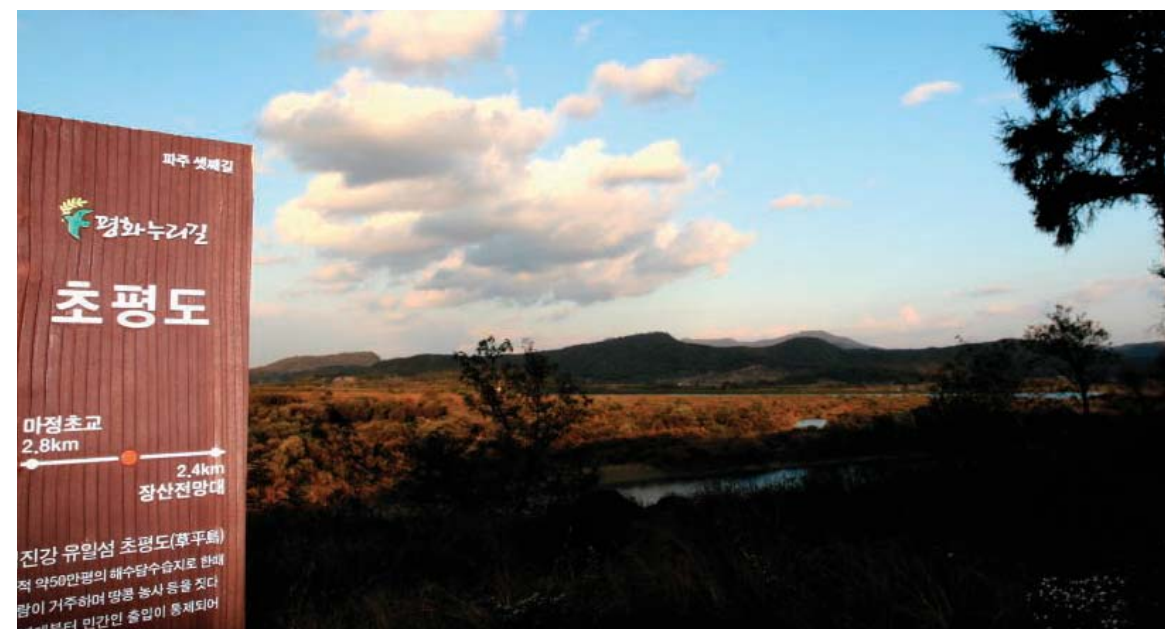
야트막한 산길을 하나 넘으니 교동 인씨 통훈공파 제실이 나온다. 산소 옆 자투리 땅을 최대한 이용해 밭을 갈아놓은 것이 마치 산자와 죽은 자가 대화하는 듯하다. 멀리 장산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장산1리를 알리는 안내판과 장산교를 건너니, 장산1리임을 알리는 큰 돌이 하나 서 있다. 무슨 식품 무슨 대표님이 기증했단다. 저렇게 크게 이름을 써야 하나? 하기가 돌값도 만만찮겠지...

마을을 지나 계속 가다보면 장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오르는 길 방향으로는 장산전망대 이정표, 좌측으로는 초평도 이정표가 나타난다. 좌측 산 아래 농가가 있는 소로를 지나면 들깨밭이 나오는데, 초로의 내외가 사이 좋게 도리깨로 들깨 타작을 하고 있다. 참 오랜만



임진강변 철책과 임진강 철교

초평도



에 보는 정겨운 풍경이다.

향긋한 들깨 내음을 맡으며, 산길을 나서면 참호지대와 수풀이 울창한 강변지대가 나타난다. 생태습지로 유명한 초평도다. 문산을 장산리에 있는 초평도는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에 위치한 습지로, 면적이 176만5000㎡에 달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과거에는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는 평화지역이었으나,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두루미와 말뚝가리 등이 서식하는 생태 낙원이 됐다.

초평도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고, 임진강 너머 초평도가 닿을 수 없는 피안처럼 호젓하게 떠 있다. 자세히 보니 초평도 내에는 버들과 이름 모를 수풀이 가득하고, 군데군데 물이 차 있는 곳도 보인다. 가만히 강가를 돌아보고 싶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 듯하다.

울곡 선생이 시를 논했던 화석정

다시 장산전망대를 향해 돌아온다. 길은 군 작전로처럼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고, 길 옆으로 참호 같은 것이 많아 보인다. 군부대도 하나 지나고 마포동 버스정류장도 지나니, 울곡2리가 4.2km 남았다는 누리길 이정표가 서 있다. 이정표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니 너무 조용해 나뭇잎 흔드는 바람소리가 반가울 정도다. 산 정상에 향해 얼마간 올라가다보니 장산전망대 250m를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다.

정상이다. 오른쪽으로는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왼쪽 전망대 쪽으로 접어들니 탁 트인 환상적인 전망대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본 전망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할 정도다. 저 앞으로 흐르는 임진강과 왼쪽의 초평도, 그리고 저 멀리 북한 개성의 송악산과 이름 모를 산들이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 같다. 남북이 이 경치와 자연처럼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멋진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서, 전망대를 나와 하산하는데 길이 완전 비포장에 문자 그대로 산길이다. 최근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한 듯하다. 제법 길다 싶게 내려오니 임진리 낙시터가 나타나고, 공사판에 쓰는 큰 콘크리트관을 적재해둔 곳이 보인다. 지나서 쭉 가니 식

자유로의 코스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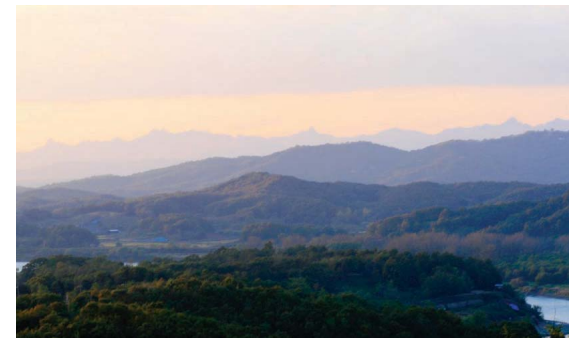
당 간판을 모아서 안내해둔 이정표가 나타난다. 임진리다. 마을 어귀에 임진리 나루터 마을이라 새긴 큰 입석을 지나 왼쪽의 임진강을 바라보며 화석정으로 향한다. 굴다리를 지나 얼마 되지 않아 화석정이 나타난다. 화석정은 조선시대의 거유(巨儒) 울곡 이이 선생이 유년 시절 학문을 연마하고 노년에 제자들과 시를 논하고 지내던 곳이란대.

오늘 최종 목적지가 울곡2리인데 울곡 선생을 기려 마을 이름을 지은 곳이다.

화석정의 현판을 보니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다. 정자 옆으로는 500년 넘은 느티나무와 200년 넘은 향나무가 멋들어지게 서 있고 앞으로는 임진강물이 유장하게 흐른다.

선사시대에 한탄강의 용암이 임진강 하구까지 흘러들어 강 유역이 형성된 터라, 강안의 경계가 높다. 그 경계로 차도가 형성되어 있고 강 너머 북쪽으로는 민통선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 이이 선생이 8세 때 지었다는 한시 한 편도 읽어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군 초소 경고문을 보며,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흐름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화석정을 나오니 주위가 어둑하다. 오늘의 목적지인 울곡2리로 향한다. 마을을 구경하고 울곡2리 버스정류장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이정표에서 평화누리 파주 넷째길의 거리가 16.6km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의 여정을 마친다. 이번 평화누리길 코스는 모든 지역이 풍경화이고 작품사진이라 할 만큼 경치가 빼어나다. 전체적으로 이정표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평화누리 꼬리표도 제대로 매어 있고, 볼거리 안내도 아주 잘 되어 있는 평화누리길의 대표 길로 손꼽아 본다. G



북한 개성의 송악산(위)과 화석정.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개)

교통 안내

반구정(파주 셋째길의 시점)

- 경의선 문산역 - 환승 마을버스 053번
- ▶ 자가용 이용 시 • 자유로 당동C에서 3분 소요

울곡2리(파주 넷째길의 시점)

- 경의선 문산역 - 도보 5분(문산버스터미널) - 환승 시내버스 92번
- ▶ 자가용 이용 시 • 자유로 당동C에서 37호선으로 진입해 6km 이동

